

설명자료

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
문의	기획처(02-880-1470)

배포일: 2022.9.16.(금)

보도에 대한 설명자료

○ 보도 기사

- “비위 교직원 666명 서울대, 11년 적발때도 징계 0명”

[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관련 보도](#) (한겨레 2022. 9. 15. 12면)

○ 설명내용

“교육부 종합감사 결과” 관련 보도 중 ‘연구비 사적 유용 등 666명 적발’ 및 2011년 업무프로세스 컨설팅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교직원의 다수는 연구년 및 해외출장 등의 보고서 지연제출이며, 연구비 관련 사적 유용 관련으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교직원은 극소수입니다. ‘연구비 사적 유용 등 666명’ 등의 표현은, 본래 의미하는 바와 달리, 연구비를 사적유용한 교직원이 600명 넘는다는 뜻으로 일부 오해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.

아울러 2011년 실시한 ‘서울대학교 업무 프로세스 및 경영 개선’ 컨설팅은 법인 전환 준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. 이는 경영 점검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, 교육부 등에서 실시하는 재정상 환수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.